삼천리를 격동시킨

통일사절들

주체107(2018). 3.

새해는 우리 인민이 공화국창건 일흔돐을 대경사로 기념하게 되고 남조선에서는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가 열리는것으로 하여 북과 남에 다같이 의의있는 해입니다. 우리는 민족적대사들을 성대히 치르고 민족의 존엄과 기상을 내외에 떨치기 위해서도 동결상태에 있는 북남관계를 개선하여 뜻깊은 올해를 민족사에 특기할 사변적인 해로 빛내여야 합니다.

김정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확고한 통일의지와 열화같은 민족애, 대범하고 통이 큰 결단과 주동적인 조치로 북과 남사이에 관계개선의 새로운 전기가 열리였다.

제23차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를 계기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고위급대표단과 삼지연관현악단, 선수단, 응원단, 태권도시범단이 남조선을 방문하여 삼천리강토를 자주통일의 열기로 세차게 끓어번지게 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고위급대표단은 청와대에서 문재인 남조선 대통령을 만나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시는 친서를 정중히 전달하고 최고령도자동지의 뜻을 구두로 전하였으며 진지하면서도 따뜻한 분위기속에서 담화를 진행하였다.

올림픽 개막식장에서는 《아리랑》노래선률이 울리는 가운데 통일기를 자랑스럽게 휘날리며 북과 남의 선수단이 공동입장하는 력사적인 화폭이 펼쳐졌다.

남녘동포들의 뜨거운 관심과 기대속에 성황리에 진행된 삼지연관현악단의 다채로운 예술공연과 북남태권도인들의 합동시범출연은 북남관계를 추동하고 우리 민족끼리의 자주통일열기를 더욱 드높인 뜻깊은 계기로 되였다.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녀자빙상호케이 북남단일팀은 서로 뜻과 힘을 합치면 우리 민족끼리 얼마든지 화해와 단합의 새시대를 안아올수 있다는것을 보여주었다.

경기가 진행되는 곳마다에서 우리 응원단은 관객들과 한마음이 되여 박력있고 활기넘친 응원을 펼침으로써 겨레의 통일열기를 더욱 북돋아주었다.

참으로 이번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는 우리 민족의 기개와 위상을 내외에 과시하고 북과 남사이에 화해와 단합, 대화의 좋은 분위기를 마련해나가는데서 매우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

편집부는 제23차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의 나날에 있은 감동깊은 화폭들가운데서 그 일부를 묶어 화첩으로 낸다.

● 편집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남측지역을 방문하였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고위급대표단 성원들을 만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남측지역에서 축하공연을 성과적으로 진행하고 돌아온 삼지연관현악단 성원들을 만나시고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고위급대표단 남조선 방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고위급대표단이 제23차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 개막식에 참가하고 청와대에서 문재인 남조선대통령을 만나 따뜻한 담화를 하였다.

석상에서 문재인대통령은 이번 북측대표단의 방문이 남북관계개선과 조선반도평화를 위한 불씨로 되였다고 하면서 오늘의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김정은**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하였다.

김영남동지는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가 성과적으로 개막된데 대하여 축하하고 문재인대통령이 큰 대사를 치르는 속에서 자리를 같이해준데 대하여 사의를 표하였다.

석상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위임을 받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김여정동지가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문재인대통령에게 보내시는 친서를 정중히 전달하였으며 최고령도자동지의 뜻을 구두로 전하였다.

문재인대통령은 **김정은**위원장님께서 이번 올림픽에 북측 고위급대표단이 참가하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주시고 친서와 구두인사까지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사의를 표하고 자신의 감사의 인사를 꼭 전해드릴것을 부탁하였다.

친서전달이 끝난 다음 우리 대표단은 북남관계개선문제와 관련하여 남측과 솔직하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김영남동지는 북남관계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는데서 확고한 의지를 지니고 용기와 결단을 내린다면 예상치 못한 애로와 난관도 능히 돌파해나갈수 있으며 통일의 미래를 앞당길수 있다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담화는 진지하면서도 따뜻한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고위급대표단은 남조선대통령과 녀자빙상호케이 북남단일팀경기, 우리 예술단의 축하공연을 관람하였다.

남조선의 문재인대통령과 따뜻한 인사를 나누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고위급대표단 성원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고위급대표단을 문재인대통령이 청와대 본관 현관에서 반갑게 맞이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위임을 받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김여정동지가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문재인대통령에게 보내시는
친서를 정중히 전달하였으며 최고령도자동지의 뜻을 구두로 전하였다.

문재인대통령은 우리 고위급대표단을 위하여 오찬을 마련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고위급대표단은 문재인대통령과 진지하면서도 따뜻한 분위기속에서 담화를 진행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김여정동지가 문재인대통령과 기념사진을 찍었다.

우리 고위급대표단 단장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김여정동지가 문재인대통령과 기념사진을 찍었다.

개막식장 주석단에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김여정동지가
문재인대통령내외와 악수를 하며 따뜻한 인사를 나누었다.

우리 고위급대표단 단장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김여정동지가 손을 흔들며 공동입장하는 북과 남의 선수들에게 인사를 보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고위급대표단은 문재인대통령과 함께 녀자빙상호케이
북남단일팀과 스위스팀사이의 경기를 보았다.

녀자빙상호케이 북남단일팀과 스위스팀사이의 경기장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고위급대표단은 남조선대통령내외와 함께 녀자빙상호케이
북남단일팀 선수들과 만나 기념사진을 찍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고위급대표단은 문재인대통령내외와 함께
서울에서 삼지연관현악단의 축하공연을 관람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김영철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고위급대표단이 남조선을 방문하고 제23차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 페막식에 참가하였다.

삼지연관현악단 강릉과 서울에서 공연

우리의 삼지연관현악단 예술인들이 제23차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 개막을 앞두고 남조선 강릉에서 축하공연의 막을 올린데 이어 서울에서 또다시 공연무대를 펼치였다.

서곡 《반갑습니다》의 경쾌한 음악선률이 울리는 속에 소개자가 뜨거운 동포애가 담긴 북녘인민들의 인사를 전하자 관람석에서는 열렬한 박수와 환성이 터져올랐다.

우리 예술인들은 녀성중창 《비둘기야 높이 날아라》, 경음악 《내 나라 제일로 좋아》, 현악합주와 녀성독창 《새별》 등 다채로운 종목들을 무대에 올렸다.

세계명곡들을 새롭고 특색있게 형상하여 펼쳐놓은 관현악련곡 《친근한 선률》에서 출연자들은 훌륭한 연주기량을 선보이며 관람자들의 찬탄의 목소리를 이끌어냈다.

공연무대에서 우리의 예술인들이 남조선노래들을 부를 때에는 관중들이 노래에 맞추어 손을 흔들며 따라부르기도 하고 재청도 하였다.

북과 남의 예술인들이 함께 부르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 《다시 만납시다》의 합창으로 막을 내린 공연은 분렬의 력사에 종지부를 찍고 존엄높고 부흥하는 통일강국을 하루빨리 일떠세우려는 민족의 념원과 의지가 뜨겁게 맥박친것으로 하여 관람자들에게 깊은 여운을 남기였다.

삼지연관현악단의 공연은 남녘동포들의 환호와 절찬을 받으며 성황리에 진행되였다.

1. 서울에서 진행된 공연에서 노래를 부르는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 단장
2. 남녘동포들의 심금을 뜨겁게 울린 삼지연관현악단의 공연장면
3. 삼지연관현악단의 공연시작 몇시간전부터 줄을 서서 기다리는 남조선주민들
4. 남조선가수와 함께 노래를 부르는 삼지연관현악단 예술인들
5. 삼지연관현악단 예술인들을 뜨겁게 환호하는 남녘동포들

남녘동포들의 목소리

《통일이 빨리 되여 이런 공연을 자주 보면 좋겠다.》

《우리 민족끼리 통일을 이루자는 노래를 들으면서 통일생각을 다시하게 되였다.》

《이번 공연의 열기가 휴전선에도 전달되여 철조망이 봄눈처럼 녹아 남북이 하나가 되기를 기원한다.》

《정말 가슴을 뭉클하게 하였다. 오래동안 얼어붙었던 땅이 녹아서 봄이 온듯 한 느낌이다.》

민족의 기상을 과시한 우리 태권도인들의 시범출연

우리 태권도시범단 성원들의 시범출연이 남조선의 속초와 서울에서 진행되였다.

지난 기간 여러 국제무대들에서 민족의 자랑인 태권도의 위용을 과시하여온 우리 태권도시범단 성원들은 슬기롭고 용감한 조선민족의 정신육체적능력과 높은 경지에 오른 태권도기술의 발전모습을 보여주었다.

정확성과 일치성, 속도와 힘, 균형, 률동 등 모든 세부들을 완벽하게 수행하며 민족의 억센 기상을 시위하는 시범단 성원들에게 관중들은 열렬한 환호와 박수갈채를 보내였다.

우리 태권도시범단 성원들은 박력있고 째인 률동으로 집체틀과 5인틀을 수행한데 이어 호신술에서 날렵한 동작과 드센 타격으로 맞다든 대상들을 통쾌하게 물리침으로써 관중들의 경탄을 자아냈다.

다양하면서도 힘있는 특기동작들과 종합격파동작들이 완벽하게 수행된 시범출연들은 관람자들에게 깊은 여운을 남기였다.

남조선의 각계 인사들은 무대에 올라 우리 태권도인들을 축하해주었으며 관중들은 손을 흔들면서 오래도록 자리를 뜨지 못하였다.

우리 태권도시범단은 시범출연에서 민족의 슬기와 억센 기상을 남김없이 과시하였다.

남녘동포들의 목소리

《뿌리는 하나이지만 각기 다른 길을 걸어온 남북태권도가 올림픽무대에서 한자리에 선것은 처음이였다.》

《뛰여난 실력으로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북 태권도시범단은 <조국통일>이라는 구호로 기합을 넣으며 남북이 하나가 되는것을 념원하였다.》

《올림픽 개막식에서 화합의 메쎄지를 전한 남북태권도가 서울에서 다시 뭉쳤다.》

《남북태권도가 합동시범출연을 통하여 남북이 하나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북과 남이 뜻과 힘을 합치면 못해낼 일이 없다

제23차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 개막식에 북과 남의 선수들이 통일기를 앞세우고 공동입장함으로써 민족의 단합된 기상과 위력을 온 세상에 시위하였다.

개막식참가자들은 조선지도가 새겨진 통일기를 들고 함께 행진하는 북과 남의 선수들을 뜨겁게 격려해주었다.

이번 올림픽대회기간 녀자빙상호케이 북남단일팀은 북과 남이 뜻과 힘을 합치면 못해낼 일이 없다는것을 보여주었다.

북과 남의 응원단과 남녘동포들이 통일기를 흔들고 열렬한 박수갈채와 환호를 터쳐올리며 응원을 펼치는 속에 진행된 북남단일팀의 감동적인 경기모습은 우리 겨레야말로 떨어져 살수 없는 단일민족임을 다시금 절감하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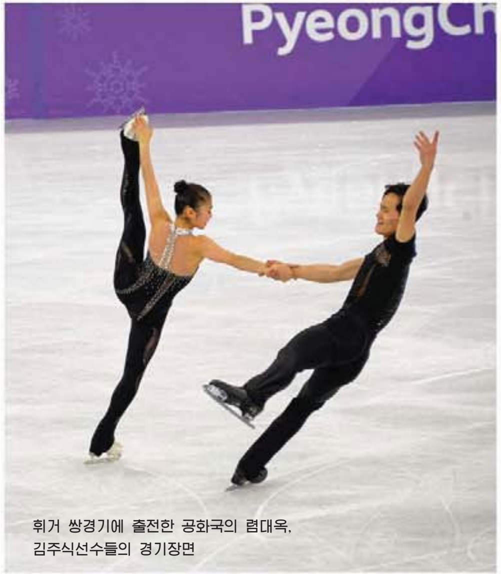
우리 응원단은 올림픽경기대회의 여러 계기들마다에서 파격적인 응원과 공연활동으로 겨레의 통일열기를 한껏 고조시켰다.

경기장들마다에서 우리 응원단은 통일기를 흔들고 《우리는 하나다!》, 《조국통일!》 등의 구호를 부르며 열정적이고 활기넘치는 응원으로 북남선수들의 사기를 북돋아주었다.

취주악에 성악과 무용을 배합한 우리 응원단의 열광적인 응원과 이채로운 야외공연은 남녘동포들의 가슴속에 통일에 대한 희망과 환회를 안겨주었다.

통일기를 앞세우고 제23차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 개막식장으로 공동입장하는 북과 남의 선수들

녀자빙상호케이 북남단일팀과 일본팀간의 경기장면



휘거 쌍경기에 출전한 공화국의 렴대옥, 김주식선수들의 경기장면

세계의 목소리

《올림픽이라는 가장 웅장한 체육무대에서 기록갱신이나 메달획득이 중요하지만 이번 올림픽에서 북남단일팀의 경기는 그 누구도 점수를 기억하지 않을것이다.》

(미국 CNN방송)

《단일팀이 북조선과 남조선을 위한 력사를 만들었다. 북남간 화해를 위한 이례적인 순간을 이끌어냈다.》

(프랑스 AFP통신)

《북남단일팀은 경기에서 졌지만 수십만명의 마음을 얻었다. 평화가 이겼다.》

(중국 신화통신)

《북남단일팀이 노벨평화상을 받았으면 좋겠다.》 (국제올림픽위원회관계자)

열정적이며 활기넘친 우리 응원단의 응원모습

우리 응원단이 가는 곳마다에서 남조선기자들은 물론 외국기자들도 앞을 다투어 취재경쟁을 벌렸다.

우리 응원단과 함께 공동응원을 펼친 남녘동포들

남녘동포들은 우리 응원단의 박력있고 활기에 넘친 응원모습에 경탄을 금치 못하였다.

우리 응원단 성원들이 취주악과 성악, 무용을 배합한 이채로운 공연을 펼치자 공연장을 찾은 남조선 린제군의 주민들이 통일기를 흔들며 열정적으로 환호하고있다.

남녘동포들의 목소리

《<미녀군단>이 <올림픽스타>로 되였다.》

《북 응원단이 <메달을 딴 선수>처럼 세계의 주목을 끌고있다. 올림픽에 출전한 유명한 선수들마저 부러워할 정도이다.》

《올림픽에서 남측대표팀과 북 응원단의 <남남북녀> 화합의 장이 펼쳐졌다.》

《북 응원단이 남측대표팀을 응원하는 함성이 남측 관중들의 웨침과 합쳐지면서 응원열기가 절정에 달하였다.》

《북 취주악단의 공연을 보는것은 행운이다. 북과 우리는 원래 한민족이라는것을 느끼였다. 감동적인 공연이였고 이런 공연들이 조선반도평화의 시발점이 되였으면 좋겠다.》

《북 대표단의 참가로 평화올림픽 개최》, 《상상도 못한 일》

(남조선과 세계언론들 격찬)

《김여정 제1부부장의 력사적인 첫번째 남측방문은 언론의 중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으며 전세계 언론의 첫머리를 장식하였다. 김여정 제1부부장이 평창올림픽에서 매력을 발산하며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외신들의 보도대로 올림픽에 외교무도회가 있었다면 김여정 당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금메달을 받았을것이다.》

《김여정 제1부부장이 3만 5 000명이 모인 개막식장에서 문재인대통령과 <력사적인 악수>를 하였다. 이러한 력사적인 순간은 불과 몇개월전만 하여도 상상조차 할수 없었던 장면이다. 북과 남이 평화를 뜻하는 올림픽불꽃아래에서 예상치 못한 특별한 화합을 보여주었다.》

《북 예술단의 공연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보여주듯 관객들은 추운 날씨에도 공연을 5~6시간 앞둔 점심직후부터 공연장에 모여들기 시작해 긴 줄을 지어 입장을 기다렸다.

국내언론뿐아니라 미국, 중국, 일본, 유럽언론의 취재진도 운집해 이번 공연에 대한 국내외의 큰 관심을 반영했다.》

《추운 날씨였지만 공연을 관람하고 나온 시민들은 가슴이 벅차오른다고 입을 모았다. 공연이 끝났지만 이곳은 설렘과 흥분이 가득한 축제분위기가 이어지고있다.》

《북 태권도시범단은 마치 군무를 련상케 하는 차분하고 절도있는 동작들과 우렁찬 기합소리로 관중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발차기와 손칼치기 등 날렵한 동작으로 두꺼운 송판과 기와장들을 단번에 박살내여 관중으로부터 련속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았다.》

《북측 시범출연은 실전을 방불한다. 북의 태권도는 갈수록 난도가 높아지고있다. 태권도고유의 위력을 뚜렷이 과시하였다.》

《북 태권도시범단이 <아리랑>노래가락에 맞추어 흥겨운 분위기속에 시범출연을 이어갔다. 유난히 우렁찬 기합소리가 쩌렁쩌렁 울릴 때마다 객석에서 박수와 함성이 터져나왔다. 주민들이 저저마다 북 태권도시범단의 화려한 공연모습을 사진에 담았다.》

《남북 태권도시범단이 하나된 모습을 연출했다. 좌석이 가득 찬 공연장에서는 관객들의 환호성이 멈추지 않았다.》

《분단의 세월만큼 다를줄 알았던 <둘>은 같은 얼굴과 같은 말을 가진 <하나>였다. 부딪쳐 쓰러졌어도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같은 언어로 <괜찮냐?>고 물으면 얼굴을 붉힐 일이 없었다. 그렇게 서로를 부둥켜안았다.》

《력사적인 올림픽 첫 단일팀은 불굴의 정신으로 민족의 기상을 엿보임으로써 관중들에게 커다란 감동을 안겨주었다.》

《단일팀은 남북의 화합을 위한 새로운 력사를 만들었다. 다른 어떤 대표팀보다 더 뜨거운 관중들의 박수를 받았다. 유일한 분단국가가 체육으로 하나가 된 장면은 세계에 잔잔한 감동을 안겼다.》

《북의 응원단이 평창을 휘젓고있다. 북 응원단의 응원이 올림픽경기보다 더 재미있다. 북 응원단이 올림픽을 장악하는데는 하루도 걸리지 않았다.》

《북 응원단이 <인간올리브가지>로 칭송을 받고있다. 특히 북 응원단이 남측과 국제사회의 끌을 모를 강렬한 <호기심의 대상>으로, <평화의 상징>으로 평가받고있다. 북 응원단이 주는 전체적인 <신비감>으로 하여 사람들을 더욱더 열광하게 만들고있다.》

《북 응원단은 남측 주민들이 어려서부터 잘 아는 노래를 부르면서 그들의 지지자들을 하나가 되게 만들었다. 남측 사람들은 북 응원단의 모습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면서 그들의 매력에 빠져들어 <유명연예인>처럼 대우하였다.》

해솟는 백두산은 내 조국입니다
제주도 한나산도 내 조국입니다
백두와 한나가 서로 손을 잡으면
삼천리가 하나되는 통일이여라
아 통일 통일 통일이여라

백두에서 조국통일 해맞이하고
한나에서 통일만세 우리 함께 부르자
민족의 뭉친 힘 온 세상에 떨칠 때
태양조선 하나되는 통일이여라
아 통일 통일 통일이여라

(노래 《백두와 한나는 내 조국》중에서)